

## 「마태오·릿치」와 1600年代 中國의 思想動向\*

(Matteo Ricci et les courant intellectuelle en  
Chine aux environ de 1600)

쟈끄·제르네(Jacques Gernet)

「마태오·릿치」는 中國의 수도 北京에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계속 유지된, 예수회 선교단의 창시자입니다. 그 전도단에 의해 구라파에 전달된 中國에 대한 지식은 유럽의 知的生活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1552년에 중부 이태리에서 태어났으며 1582년에 「마카오」에 이르렀고, 北京에 자리잡은 것은 1601년이었으며 1610년에 그가 세상을 떠날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1583년부터 1595년까지 〈廣東〉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中國의 上流社會와 접촉을 갖기 시작한 것은 1595년 〈南昌〉에서와 1599년 〈南京〉에서였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는 당시의 여러가지 思潮를 좀 더 뚜렷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북경에 와서는 마침내 그의 몇몇 친한 중국 친구들에게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

니다. 나는 여기서 나의 다음과 같은 假說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즉 「릿치」의 그러한 행동은 17세기 초기의 어떤 思潮를 강화하는데 있어 아주 적기는 하나 그러나 어느만큼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政治的 事件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제목은 17세기初의 사상사에 관한 것인데 더러 정치사에도 관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취급하려면 우선 相異한 文明을 가진 두 지역간의 접촉이라는 큰 과제를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날 汎世界的일 수밖에 없는 文明권속에서 살고있는 우리와는 달리 16세기나 17세기 구라파 사람들은 사회적관습, 도덕관념, 사상, 예술과 학문, 나아가서는 종교문제에

\* 이는 佛蘭西의 파리 第七大學 東洋文化語言部長인 「제르네」教授가 1973年 5月 2日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에서 行한 同題의 講演을 「제르네」教授의 同意를 얻어 翻譯刊載하는 것이다. 翻譯은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佛文學科의 鄭智榮教授가 맡아 하였으며 同人學 東洋史學科 閔斗基教授에 依해 다듬어 진 것이다.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관습이나 개념과 다른 것들은 쉽사리 받아들이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엄두에 들 필요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릿치」나 그의 동료들 또는 후계자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미술이란 한낱 서투른 유치원생의 그림에 불과했으며, 음악 또한 귀를 찌르는 不協和音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중국인의 정신세계와는 전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달른 사람들의 세계 및 역사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인으로서의 관점을 갖고 중국에 온 것입니다. 하여간, 서로의 접촉은 이루어 졌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점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아는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나는 平均音階를 쓰지않는 文明이 갖고있는 旋法音樂을 두고 西洋의 한 音樂學者가 말한 견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배우고 나면 旋法音樂의 정묘함을 모두 완전히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旋法音樂을 平均律階로 조련된 귀를 갖고 듣는다면 청각의 餘裕性때문에 바로 平均律音階 그것을 듣게 된다.(귀는 音標의 정확성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차이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旋法音樂은 빈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모든분야에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스피라칠학적 개념에 깃어 있는 「릿치」로서는 당시 中國學人 사회에서 유행하던 人間의 本性에 관한 철학적인 토론은 생소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릿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論理가 결여되어 있으며

도덕적인 善과 자연적인 善, 선천적인 善과 후천적인 善을 구별할줄 모르는가 하면 人間本性은 原罪로 인하여 부패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神의 도움과 은총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人間의 本性이 善한지 아니면 惡한가 또는 아무래도 좋은가하는) 문제는 계속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이다.」

「릿치」가 그 안에서 生成된 관념체계(categorie)와는 전혀 다르며 또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中國의 哲學이 그에게는 보잘 것 없고 어설픈 철학으로 보여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선교사들과 중국인 상대자들과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이 사는 사회에서 차츰 변형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들은 어느정도 中國人化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가피한 적응을 설명해주는 증거로서 생각나는 것은 「릿치」의 중국어로 된 저서나 회상록들입니다. 이와같은 적응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뿐 아니라 또한 중국의 예수회선교단의 창시자들이 추구해온 목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不可缺한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외부세계와 접촉을 갖게된 선교사들의 태도를 두고 볼 때, 위의 두가지 점을 미리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들의 외국인들은 어떤 관념체계에 속하며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최초의 문제중의 하나였던 것

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악마를 쫓는 聖職者」(exorcistes), 道敎的인 煉金術師나 도교신도들을 연상케 하였던 것입니다. 귀신이 나오는 집을 갖고 있었던 兩廣總督이 「릿치」와 그의 동료들이 마귀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해 마지않았다고 「릿치」는 1583年초에 한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후 선교사들은 「악마를 쫓는 聖職者」노릇을 즐기어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잊혀지고 있습니다만 악마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당시 기독교 신앙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중국인들을 그릇된 方向으로 이끌어 가며, 그들로 하여금 거짓 神들을 숭배하도록 하고, 중국인들을 그들이 보기에 不道德한 행위로 이끌어가는 것은 다 이 마귀의 소행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릿치」생각에는 점쟁이들의 예언이 흔히 맞아들어가는 예가 있을 경우 그것은 사탄의 영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릿치」에게는 죽을 때까지 도처에서 언급술사라는 소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북경에서 쓴 마지막 서한에서 밝혔듯이, 서양의 선교사들은 銀을 마음대로 제조할 수 있다고 중국인에게 믿게 내 버려두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유익하다는 한 중국인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의 生活經費가 「마카오」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인들이 알게되는 경우 그들은 즉시 중국에서 추방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악마를 쫓는 聖職者」인가하면 때로는 가짜 언급술사였던 이 선교사들은 오히려 여러가지 면에서 불교신도들과 공통점을 띄고 있었습니다. 의상과 외양 뿐 아니라 姓名까지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16세기말까지 중국·월남·마닐라·일본등 동부아세아 전역에 걸쳐서 볼 수 있습니다. 「릿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은 폴투갈에서 수도사가 하듯 수업을 깔고 우리나라(이태리)에서 흔히 보듯 단발하였으므로 중국인들은 신부들이 승려와는 다른것이라는 것을 납득하려들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아내를 거느리지 않았으며 교당안의 住居나 執務室에서 혼자 기도문을 외운다는 점등 모든 면에서 승려(和尚)들과 유사하였던 것입니다. 스페인인인 도미니코敎團의 「후앙·코보」(Juan Cobo)는 마닐라에 있는 中國人에게 준 두권의 기독교 소책자와 1592년 여름 豐臣秀吉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자신을 <僧侶>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敎皇을 <和尚王>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릿치」에 따르면 광동사람들로서는 신부나 평신도 修道士 그리고 <마카오>에서는 기독교신도들은 모두 和尚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國人들도 여전히(선교사들을)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최초의 예배의식은 야소회도들이 극진히 위하는 聖母에 대한 의식이었는데 이것은 <廣東>과 福建지방의 바다의 女神, 바다의 보호신에 대한 의식을 연상시킵니다. 1583년 兩廣의 행정수도인 肇慶에 「루기에리」

(Ruggierie)신부와 「파시오」(Pasio)신부가 건립한 교당은 廣東人의 女神의 외양을 다 갖춘 神位인 <天主聖母娘娘>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릿치」가 최초로 개종시킨 12명은 대부분 <생선과 육식을 삼가고 중국식으로 禁食하며 苦行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齋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불교신도들의 慣例를 일컫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식 예배에 있어서도 서양에서 들어온 그는 종교는 불교의 것과 유사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중국에 뿌리를 박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유사성을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의미의 改宗者——가장 열렬하며 신앙심이 깊은 자들을 말합니다——들은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뚜렷한 예로 楊廷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神秘的 傾向의 인물이었으며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데 과도기를 거의 겪지 않았던, 금식과 고행의 실천가였던 것입니다.

「릿치」 자신도 이 두 종교신앙간에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은 고대 서양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印度的, 佛教의 네가지 요소는(大乘佛教에서의 四大) 「데모크리토스」적인 세계의 복합성과 「피타고라스」가 말한 율희설등 고대 희랍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佛法僧의 三位一體는 그가 보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三位一體의 변형이었던 것입니다. 天國과 지옥, 苦行과 獨身, 자비심등 이 모

든 것은 기독교에서 따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교의 승려들의 염불하는 모습은 구라파의 교회의 종교음악과 흡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그림 등(燈), 머리에 쓰는 모자까지도 기독교의 예식을 연상케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 논증을 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란 불교의 타락된 형태에 불과하며 위대한 인도의 종교에서 대부분의 原理를 따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불교에 대한 적대감과, 불교의 승려의 정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추어 내겠다는 의도는 이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릿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가장 천하고 가난한 계급 출신이고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전체에서 가장 타락되고 빈천한 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공부물하여 무언가를 알고 있는 몇몇 훌륭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예의도 모르며 글을 쓰지도 못한다」

그러나 1583년부터 1595년까지의 광동 체류시기의 12년간, 「릿치」와 그의 동료들은 불교의 諸宗派의 하나로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전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준 것은 커다란 전환기인 1594년과 1595년에 이르러서인데 그 결과는 中國 基督敎史와 그 영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17세기와 18세기 구라파 사상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갖다 주었습니다.

「릿치」는 그의 친구 羅太素의 충고에

따라, 기독교인을 和尙으로 간주하는 廣東지방이나 아니면 적어도 江西나 南京에서만이라도 수염과 머리를 기르도록 허락해줄 것과 선교사들의 신분을 좀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上級者에게 요구하였었습니다. 이 새로운 명칭이 「道人」이라는 칭호였으며, 「릿치」는 이것을 <predicatori letterati>라고 번역하였는데 그후 중국인들에 의하여 「西儒」라는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1595년 5월, 최초로 「릿치」는 수염과 머리를 길게 기른채 선비의 차림으로 江西의 吉安에 나타났습니다. 同年 8月 29日 宇 서울에서 그와 그의 동료 「카다내오」(Cattaneo)의 수염이 1년에 허리까지 자랐다면서 만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이름을 바꾸는 데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릿치」가 광둥에서 지낸 12년간, 그는 중국인들이, 「릿치」의 표현에 따르면, 「다른 생활세계의 일」에는 별로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1595년 11月 4日 南昌에서 쓴 서한에서 그가 유명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밀리서 온 외국인인데도 중국어를 정확히 구사한다는 것. 둘째로 놀랄만한 기억력을 갖고 있으며 儒敎의 四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세째로 수학과 천문학에 밝다는 것, 네째로 그가 지니고 다니는 희귀한 물건(三稜鏡, 聖書, 서양의 天文觀測儀, 天球, 地球儀), 다섯번째로 그가 할수있다고 생각된 연금술에 관한 재능, 여섯째로 그가 가르

치는 종교에 대한 흥미입니다.

「릿치」의 모든 행동은 중국인들의 반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극한 조심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것처럼 놀랍고 박식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중국상류사회의 인물들을 기독교로 유인하고자 애쓰기는 하였으나 한편 중국인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고자 온갖 신경을 다 써서 기독교의 일반론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1596년 10월 13日 宇 서한에서 그는 우선 기독교 신앙의 “근본바탕만이라도 자리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神의 존재원칙, 영혼의 불멸, 정당한 인간에게는 天國이 있고 악한자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것 등입니다. 기독교의 秘義는 진즉부터 이것을 받아들일 차비가 되어있는 자에게만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가장 자극적인 영상일 十字架에 못박힌 예수의 고통을 상기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에 대하여 불리한 여론을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음으로 실패로 돌아가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1年前, 「릿치」는 그의 서한에서, 선교사들은 一萬名의 기독교인을 더 만드는 것보다는 중국인을 더 잘 이해하고 中國의 經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슴치않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가장 접촉을 많이 가졌던 士大夫와 관리들 사회에서 기독교(적어도 그 근본원리)는 理性과 儒敎經書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있는 科學과 일치된다는 것을 설득하는데 애물 썼던 것입

니다. 理性에 의한 논증 (arguments de raison)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중세기 이후 구라파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낡은 수법인데 그 방법을 야소회가 개발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소회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는 학교를 나올 때 스코라 철학, 라틴문예와 수학에 관한 지식보따리를 지니게 되어 있었는데 「릿치」가 중국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이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릿치」는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으로서 수학자나 천문학자로 자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지식층에서 중요한 존재였던 철학자나 “道學者”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릿치」의 여러 저작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은 交友論이라는 것을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라틴작가들의 글에서 발췌한 交友에 관한 金言을 수집하여 놓은 소책자입니다. 1600년대 明代말기에 수차례의 版을 거듭한 이 책자를 읽으며 심취되지 않는 士大夫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에 매력을 느끼지 않았던 士大夫일지라도 기독교리를 논증하며 설명한 天主實義만은 간혹 읽었던 것으로 「릿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책이 도덕에 관하여 써어있고, 기독교의 보다 일반적인 원리만 다루고 있고, 글잘하는 中國學人에 의해 다듬어진 우수한 文體로 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면 왜 그러하였겠습니까?

이상에서 중국지식층에서 「西儒」로 인정받아 당시 思潮에 영향을 미친 「릿치」의 위치를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두가지의 중요하면서도 부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릿치」와 그의 동료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의 일부는 그 당시 實學이라고 불리운것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수학과 천문학, 기계, 水利 지리, 砲術에 관한 유럽인들의 소개는 국가의 번영과 방어에 유익하고 훌륭한 학문이라고 여기는 同調者들의 생각을 더욱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그 학문은 宋代의 철학의 基本用語에 관한 空談에 반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저승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하여 그들을 거북하게 하지 않았던 孔子의 大崇拜者, 그리고 儒教經書의 篤學者로 자처했던 「릿치」와 그 동료들은 어떤 면에서는 비교적 정통주의 경향이 있는 철학자로 보였는가하면 합리주의 철학자로 보이기도 하였읍니다. 사실 이들은 儒教의 지지자 그리고 모든 미신의 반대론자로 자처하였으며 널리 퍼져있는 占卜이나 風水說에 대한 信賴, 道教의 長生術, 輪廻說과 應報觀念에 대한 佛敎의 도구마들에 대하여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1595년 南昌에 도착하면서부터, 특히 1599년과 1600년에 南京에 체재하는 동안 「릿치」는 당시 가장 유명한 몇몇 文人과 思想家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게된 「릿

치」는 明代에 널리 유행되었던 講學토론회에 간혹 참석하도록 초청받아 중국인의 知的生活의 다양성과 풍요함을 믿어마지않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조금도 놀랄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후 北京에서 어떤 보다 근본적인 반대경향을 알아차리고는 그 반대경향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의 중국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王陽明(1592년 사망)의 학설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行動과 實踐的인 智慧를 목표로 삼고있는 그의 철학은 통합화(interiorisation)에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주의 모든 원칙은 마음속에 있으며,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良知의 직감이 부여되고 있어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속에서이며 이 직감을 만인의 善을 위하여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王守仁의 사상을 몇줄로 요약할 수는 없겠으나 이자리에서는 일반적인 方向을 지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王守仁의 사상은 개인의 정신수양에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자자 타고난 천부의 智慧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리하여 그의 사상은 明代말기의 중요한 學派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思潮는 당시 중국철학의 諸分野를 다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상가들은 11세기와 12세기의 철학에 더욱 밀접하게 집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류하기는 곤란하니 가령 자연주의자 王廷相(1544

년 사망), 철학자 黃綰(1477—1551)과 呂坤(1536—1618) 혹은 언어학자 陳第(1541—1617)등 독창적인 인물들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당시의 철학적인 思潮를 비평한 사람들입니다.

王守仁의 학파중에는 극단적인 偏向, 자유주의적인 경향 그리고 이단성 때문에 두각을 나타낸 派가 하나 있는데 16세기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중의 몇몇을 배출해낸 泰州學派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릿치」는 바로 이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극진한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祝世祿(1539—1610)이라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철학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黃宗羲는 그의 明儒學案에서 祝世祿을 泰州학과 철학자들 가운데 耿定向(1524—1602)의 제자로 분류하였습니다. 「릿치」의 절친한 친구인 祝世祿은 여러차례 「릿치」를 도와주었으며 1600년에 「릿치」가 北京을 방문할 때 추천서를 써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릿치」는 또한 當代 泰州학파의 가장 위대한 두 철학자 焦竑(1540—1620)과 李贄(1527—1602)를 南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적이며 대담한 사상가들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의 사상사를 통하여 볼 때 그중에서 李贄는 가장 자율적(libres)인 정신의 소유자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에서 오명을 뒤집어쓴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당시 부당하게 경멸받고 있던 武官의 역할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文學樣式이라고 간주되

던 傳奇文學의 장점과 그 가치를 역설 하였으며 男과 女는 동등하다고 주장하였었습니다. 또한 人生의 유일한 指針은 (쉬 잃어버리기는 하지만) 어린시절의 童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焦竑이나 그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李贄를 특징지워주는 것은 佛經을 사랑하며 불교와 특히 불교의 禪에 공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焦竑의 생각으로는 佛敎의 經典은 經書(儒敎)중 가장 우수한 것에 대한 주석과 같은 것인데 漢과 宋代의 주석가들은 유교 경전중 조잡스런 것에 대해서만 주석을 하는데 그쳤었다는 것입니다.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의 세교리는 하나의 교리로 통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아무런 이의를 붙여도 무방하다고 焦竑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禪宗의 개념을 따서 論語를 설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유교 經書와 불교를 절충한 것은 焦竑과 李贄만은 아닙니다. 泰州학파의 학자들과 그 친구들인 胡直, 羅汝芳, 管志道, 周汝登등……도 그러한 절충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의 유행이었습니다. 현대 이 절충화경향은 경도를 지나쳐 과거시험 응시자들이 답안에서 불교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는가하면 불교와 유교의 접근을 합부로 기도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릿치」에 의하면 1600년대에 불교의 개혁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황후와 조정의 환관들의 지원을 받았었고 「릿치」도 마침 알고 있는 蓮觀, 憨山,

佛會(蓮池), 雪浪(黃三淮)과 같은 당시의 유명한 高僧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1602년에는 수 많은 새 법당이 지어졌으며 옛 법당도 많이 개수되었다고 「릿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98년 이후의 지방에서의 환관들의 착취로 인하여 조장된 것이 분명한 正統派의 반발이 1602년에 나타났습니다. 1602년 4월 14일 吏部尙書 張問達이 良俗을 그르치며 유교를 왜곡하고 있는 장본인이 李贄라고 신랄히 비난 공격하는 내용의 상주를 황제에게 올렸습니다. 張問達의 상주와 청원에 따라 李贄는 체포되었으며 그의 서적도 압수되어 불살라졌습니다. 李贄는 1602년 5월 7일 감옥에서 자살하였습니다. 張問達의 상주에 이어 곧 禮部尙書 馮琦가 상주하였는데 馮琦는 그의 그 상주에서 正統思想에 대해 격렬하게 공격하였고 과거 시험에서 불교와 유교를 뒤섞는 습관을 비난하였었습니다. 그의 상주는 그해 5월 18일 황제에 의하여 裁可되었습니다. 李贄가 죽은지 1년이 조금 지난 1603년 12월 14일 마침내 한 사건이 북경에서 벌어졌습니다. 즉 황제가 왕위 후계자인 왕자를 폐위시키고자 하고있다고 비난하는 책자가 그날 아침 황제와 황제의 친척집에서 그리고 高官의 집문앞에서 발견된것입니다. 일련의 恣意的인 체포의 선봉을 불러일으킨 이 傳單사건은 마침내 불교에 同情的인 여러 명의 高官과 宮中의 승려들을 박해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릿치」는 이 사건을 아주 기뻐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泰州학파의 위

대한 철학자이며 「릿치」와 친숙하였던 李贄가 극진히 맞아준 일이 있는 南京과 山東의 濟寧에서 李贄의 자살에 박수 갈채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실로 바람이 달리 불고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정세의 움직임에 정통하였으며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고 있던 「릿치」는 1604년 이후 東林黨을 중심으로 체결함하게 된 정통파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張問達과 馮琦는 1625년초에 공포된 그 유명한 東林黨員 추방대상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는 바로 魏忠賢 환관파의 승리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고급관리는 「릿치」와 그 밖의 야소회선교사들과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張問達은 機械의 研究에 沒頭하는 學者王徽과 同鄉이었는데 王徽은 基督教로 改宗하였으며 張問達의 아들 張種芳까지 改宗시켰던 것입니다. 張問達과 그의 아들은 한 선교사의 漢字敎本の 편찬을 도왔으며 序까지 써주었습니다. 馮琦로 말할것 같으면 「릿치」자신으로부터 고리문답을 받았는데 그가 죽을 임시인 1603년 4~5월경에 거의 改宗할 정도로 되어있었다고 「릿치」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東林당 사람중에서 선교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것은 張問達과 馮琦뿐만은 아니었습니다. 1625년부터 福建省에서 「알레니」(Aleni) 신부들 도운 바있는 葉向高도 北京에 있는 代表의인 東林黨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쓴 지서에 서문을 써주었으며 「릿

치」에게 호의를 갖고 있던 御史 曹干汴과, 야소회신부들의 지서에 마찬가지로 서문을 쓴 바 있는 熊明遇를 들 수 있습니다. 나 자신 아직 그 가치를 실증하지는 못한 한 자료에 의하면 徐光啓, 李之藻, 楊廷筠등 세사람의 지명한 「릿치」 제자들이 1624년이전에 無錫의 東林書院의 講學에 참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림당에 대한 魏忠賢의 박해가 있던 무렵 파면된 徐光啓는, 1625년에 魏忠賢側近人物중의 한사람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몇몇 東林당원들 사이의 이와같은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보아 「릿치」와 그의 동료들은 17세기초 중국의 정치적, 지적生活의 변천과정에서 소의으로 異邦人만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받아들여질수 없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東林黨의 어떤 사람들과 선교사들과의 각별한 친교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내생각으로는 東林당원들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애국자이며 知的인 면에서는 정통파인 것으로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애국자로서 그들은 환관과 그 일파들이 나라안에서 저지르는 부패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뜻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분야에서 능률을 가져와 滿洲族으로 부터 중국을 지키는데 치중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哲理를 탐구하기보다는 實學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긴요하고 유용한 일로 이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통파로서는, 거의 한세기전부터 중국의 知的生活의 특징이었던 正統逸脫 傾向, 특히 士大夫사이에 만연된 불교와 禪宗의 교리를 공격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유교의 도덕을 크게 찬양하였고 불교에 대해서는 적대시하였고 경제와 국방에 유익한 지식을 갖다준 선교사들에 대하여 그들이 호의를 갖았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기독교를 전도하는데 있어 「릿치」가 취한 방침과 東林당의 정통적이고 애국적인 反動 (réaction)과의 유사성은 명백한 것입니다. 「릿치」와 그의 동료들이 北京에 도착한 때는 중국의 지식층과 행정전반에 걸쳐 나타난 새로운 동향을 이용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상황은 선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움직였지만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예수회 선교사업의 창시자가 채택한 신중한 방법을 역시 “西儒”라는 칭호를 받게끔 된 그 후계자도 계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릿치」가 죽은 다음날부터 선교사들사이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지금까지의 方法이 지나친 타협에 치우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그 유명한 典禮論爭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사실, 중국의 상류사회에 너무 교묘히 적용하려고 한 「릿치」는 기독교의 핵심, 자체를 왜곡하는 위험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萬物의 創造者인 神에 대한 관념을 승인시킨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던 터입니다. 天地창조에 관한 문제는 중국인의 전통파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것이며, 人生전체의 원리

이며 자연과 인간의 온갖 질서의 원리인 天에 대한 관념보다는 神(天主)에 대한 관념이 더욱 한정적이며 덜 보편적인 것으로 중국인들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성요소인 人類생활의 비극적인 개념에 관하여는 어떻게 말해야 할가요? 눈물의 계곡에서 방황하며, 원죄로 더럽혀진 人間은 꼭 얻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神의 은총을 간청하므로서만 지옥의 영원한 고뇌로부터 구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행동에 달려 있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감각이 주로 불교에 의하여 형성된 세계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차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는 비극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따르면) 行動은 배태후에 그 열매를 열개하기 마련이며 再生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르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항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明代말기의 선교사들이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그들 신봉자들에게 전수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예수회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일종의 서양의 유교인양 소개를 하려고 했다면 더욱 서양의 기독교인과 중국의 士大夫간의 이해는 거의 오해에만 근거를 두게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중국의 역사적 여건과 선교사들의 행적을 비교연구한다는 것은 1594년에 「릿치」가 택한 方法이 17

세기초 중국의 정치적, 사상적인 생활의  
변천과정에서 정당화되고 입증되었는 가  
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릿치」가 택한 方法은 17세기와 18세  
기 구라파의 사상에 대해서는 물론이  
고 동시대 중국의 基督教의 歷史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